

영한 번역에서의 효율적인 번역 교육을 위한 소고

이 근 희
(건국대)

1. 서론

번역학은 “번역 텍스트의 생산과 번역 현상에 관한 기술(記述)을 하며 제기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번역자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André Lefevere, Bassnett 2002 1 재인용). 모든 번역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차원적이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품질이 좋은 번역 텍스트의 생산이다. 따라서 번역에 관한 연구 역시 품질이 좋은 번역 텍스트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번역은 번역 행위에 개입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단 하나의 최고 품질의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못한 번역의 특성을 귀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일반 번역자나 번역 지망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 텍스트의 번역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용어는 ‘번역투’와 ‘오역’이다. 그렇다면 번역투가 무엇이고 오역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여성(2002)의 시도를 제외하

고는 번역투와 오역의 경계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번역투와 오역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 오역에 관한 문제가 번역자 개인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번역투에 관한 문제는 교육을 통해 번역 텍스트의 품질 개선이 가능하고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번역의 현상이나 번역 교육의 과정에서 번역투가 많이 언급된 이유이기도 하다. 번역투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과 연구를 살펴보면, 번역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번역에 관여했던 전문 번역자나 편집자가 오랜 세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목표 언어 체계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번역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번역투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거나, 국어학자들이 외국어의 간섭과 한국어의 체계에 적합한 번역을 유도하는 교육 과정에서 번역투와 관련된 내용을 논하였고, 김정우와 박여성과 같은 극소수의 번역 관련 학자들은 번역투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권웅호, 김정우, 문용, 박여성, 송민, 장진한, 원영희, 이근달, 이석규 참조). 그러나 이들 문헌 자료에는 번역투의 유형과 대안, 번역투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있었으나, 실제로 번역투에 가장 취약한 초보 번역자의 번역과 번역투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이며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초보 번역자들의 번역이 번역투의 유형에 있어서 어떠한 분포를 보여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밝혀 번역의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홈즈(James Holms)의 번역학 범주 가운데 응용 번역학의 ‘번역교육’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일반 번역자는 물론 초보 번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의 자료에서 분류하고 있는 번역투의 유형을 토대로 초보 번역자이자 잠재적 번역자들의 번역과 번역투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번역 텍스트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토대로 번역투와 오역의 정의 및 경계를 밝히는 일부 터 시작하여 초보 번역자들의 번역투 양상, 원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번역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논고의 목적이 있다.

2. 번역 텍스트의 평가

2.1 기술적 접근으로 살펴본 번역 텍스트의 평가

번역 텍스트 20권의 번역자 후기(後記)와 46개의 번역서평을 토대로 행해진 박여성(1997, 2002)과 이홍식(2002)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번역 텍스트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주로 ‘투박한’, ‘매끄럽지 못한’, ‘서투른’, ‘미비한’, ‘어색한’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된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에는 ‘정확한’, ‘뛰어난’, ‘술술 잘 읽히는’, ‘쉽고 편안한’, ‘자연스러운’, ‘구김살 없이 풀어낸’, ‘무리 없는’, ‘매끄러운’, ‘제대로 된’ 번역, 등의 수식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원천 언어의 체계에 비추어 표현되는 수식어가 아니라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언어 체계에 비추어 표현되는 수식어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번역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일차적으로는 목표 언어권의 언어 층위에서 이루어져 그 글이 주는 인상(印象)¹⁾이나 구조 또는 어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의 문법체계나 단어들의 호응관계, 관용적인 용법에 비추어 번역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번역 결과물의 일차적인 평가 기준이 목표 문화권의 언어 체계를 토대로 행해진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연구는 성초림(2001)의 연구이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 대학원에서 번역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에게 번역물 평가에 대해 반개방형(半開放形)으로 설문을 실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역물 평가에서 학생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든,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든 교강사들은 모두 ‘도착어(목표 언어)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2). 번역물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자연스러운 목표언어의 표현’이라는 응답이,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는 ‘한국어 텍스트의 전체적인 논리와 원문에 대한 이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44). 번역 평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로 여기는 문체에 대한 설문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옮길 때는 ‘지나친 직역’과 ‘핵심적인 단어나 정보의 누락’을 비슷한 비율로 꼽았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에는 ‘핵심적인 단어나 정보의 누락’이 압도적이었으며 ‘지나

1) 박여성은 이를 “인상비평(印象批評)”이라 명명하였다.

친 직역'도 19%에 달했다(44).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지나친 직역'이다. 이는 곧 목표 언어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지나친 직역'에서 비롯됨을 시사하는 것이며, 번역 평가에 있어서 목표 언어 체계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항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강사들이 적용하는 번역물 평가의 기준으로는 '목표언어 표현의 정확성', '목표 텍스트의 논리성', '정확한 목표언어의 문법', '의역 혹은 직역여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목표 텍스트의 스타일'과 같이 목표언어 체계와 관련된 항목이 5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원천 텍스트의 이해도'가 20%를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TT에서 TL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2.2 번역 텍스트의 평가과정

기술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번역 텍스트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TT(Target Text)가 목표 문화권의 언어 체계에 비추어 적절한가 여부에서 이루어진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은 원천 텍스트의 언어나 그 밖의 요소들의 대조 및 비교 없이 번역 텍스트 상의 표현이 목표 언어의 체계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생소할 때 번역된 텍스트라든가 번역자의 번역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가 '번역투'인데, 이질적인 문화의 요소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번역투의 경우는 아니지만, 언어 체계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번역투는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품질이 낮다고 평가하는 번역 텍스트와 상관이 있다. 이렇듯 번역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목표 문화권의 언어 체계에 관련된 적합성 여부'에서 이루어진다.

이차적 층위의 평가는 'ST를 둘러싼 언어 내적이고 외적인 전문지식의 충족 여부'에서 이루어진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대조 및 비교를 통해, ST(Source Text)를 둘러싼 언어 그 자체나 언어 외적인 요소, 즉 사회, 경제, 역사, 정치, 문화 등과 관련된 지식이 정확한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틀린 번역이라고 하는 '오역'의 문제가 바로 이 단계에서 여과된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했을 때 원천 텍스트의 일부 의미가 왜곡되었다면 이는 오역에 해당된다. 오역은 '원천 언어 그 자체에서 야기되는 오역'과 '원천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서 야기되는 오역'이 있다. 원천 언어 그 자체에서 야기되는 오역은 번역자가 원천 언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오역이고, 원천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서 야기되는 오역은 문화라든가 언어 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오역이다. 번역투가 '목표언어의 어휘적, 통사적, 화용적, 관용적인 용법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로 일대일 대응하는 데서 비롯되는 생소하거나 부적합한 표현'이라면, 오역은 '원천 텍스트를 둘러싼 원천 언어 그 자체와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언어 외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틀린 번역'이다. 번역투는 원천언어를 모르는 독자라 하더라도 목표언어의 언어체계에 비추어 인지가 가능하며, 이야기의 전개나 맥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오역은 원천언어를 모르는 독자라면 목표언어의 체계에 비추어 인지가 어렵고, 이야기의 전개나 맥락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전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번역투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오역은 번역자 본인의 언어 내적이고 외적인 지식의 축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번역 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비로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번역 행위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번역전략의 적절성 여부'이다. 즉, 번역 텍스트의 선정과 생산에 관여되는 텍스트의 장르나 독자, 번역의 목적, 기능, 출판 정책 등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번역 전략이 적절히 구사되었는가에 관심이 있다. 번역의 평가과정이 이렇다면 번역자가 번역을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 번역자는 TT가 일차적으로는 TL의 체계에 적합해서 부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아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ST의 언어 내적이고 외적인 지식에 부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TT를 둘러싼 모든 요소를 고려한 번역 전략이 적절해야 한다. 그렇다면 번역자가 번역의 품질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번역투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3. 번역투(翻譯套, 'translationese')

3.1 번역투의 정의 및 개념

번역투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견해는 사전적인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투(套)'라고 하면 “말이나 글, 행동 따위에서 비롯처럼 일정하게 굳어진 본새나 방식”이라고 국립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록되어 있다(6444). 이 정의에 따르면 ‘번역투’란 “특정의 글에서 그 글이 원문이 아니라 번역문이라는 표지(標識)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방식”이다. 혹자에 따라서는 ‘번역문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체’란 “문장의 개성적 특색으로 시대(時代)나 문장의 종류, 글쓴이에 따라 그 특성이 문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드러나는” 것이다(2292). ‘문체’의 순화된 표현이 ‘글투’이다. 따라서 ‘번역문체’란 “글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나타난 번역문의 독특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국내의 학자로는 김정우와 박여성을 들 수 있다.

김정우(2003)에 의하면 번역투란 “직역의 번역 방법으로 산출된 번역문에 존재하는 원문 외국어 구조의 전이 흔적”으로서, 의역과 직역의 번역 방법 가운데 “직역의 번역 방법을 채택한 번역자는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내내 외국어 원문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모국어의 문장과는 다른 특징을 띠게 된다”(144).

그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인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번역투의 유형을 제시하면서(1990),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번역투의 영향에 대한 실태를 구문 형식과 굴절 요소, 전치사구/관용어구, 기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2003). 박여성(2002)은 번역투를 협의(狹義)와 광의(廣義)로 분류하였다. 협의로는 번역투가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간의 형식적인 일치와, 외국어와 모국어 사이에서 의미, 형태 및 화행의 괴리로 인해 생기는 부자연스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의미의 전달을 방해하는 과도현상”이고, 광의로는 번역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목표언어로 정착한다는 점에서 “출발언어의 통사, 의미, 화용, 문체론적 특성이 목표언어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합(不整合)” 현상이다(8-9).

번역투를 의미하는 영어 ‘translationese’는 ‘translation’에 ‘-ese’가 붙은 형태

로서, ‘-ese’는 ‘journalese’, ‘legalese’, ‘Brooklynese’, ‘officialese’, ‘Pentagonese’, ‘federalese’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전문어나 문체, 강세를 일컫는 신조어에 덧붙이는 접미사이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신조어는 난삽하고 과장되어 좋지 않게 인식하는 글에 대한 조롱이나 멸시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Encyclopedia Britannica 775, Fowler, Longman Dictionaries 463, Baker 1992 24, Random House 450). 번역투(translationese) 역시 ‘translatese’, ‘translatorese’라는 용어와 함께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의 문학관련 언론계에서 목표 언어에 비추어 유려함이 떨어지는 번역을 비평할 때 경멸조로 사용하던 용어이다. 마크 셔틀워스(Mark Shuttleworth)와 머이라 카위(Moira Cowie)는 번역투(Translationese, Third Language)란 “두드러지게 원천언어의 특징에 의존한 탓에 TT에 쓰인 목표언어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습게 여겨지기조차 할 때 사용하는 경멸조의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187). 이와 같이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번역투의 특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SL의 메타포를 TT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법적인 어순이 부자연스럽거나, 잘 쓰이지 않은 전문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187). 목표 언어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휘나 문법구조의 사용 외에도 의미나 문체, 화용적인 기능도 포함된다(Puurtinen 391). 이러한 특징은 목표 언어권의 고유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간에 구별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Steiner 332, 338), 초보 번역자나 전문 번역자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Tirkkonen-Condit, 조상은 참조). 가독성(可讀性)과 관련이 있는 번역투는 번역자의 부족한 번역 능력이나 언어적이고 텍스트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거나(Tirkkonen-Condit 208), 과도한 직역 또는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들 수 있다(김정우, Shuttleworth, Mark & Cowie 187 등). 전문 번역자라 해도 번역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들면 번역투란 “좋지 못한 번역의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 목표 언어에 대한 원천 언어의 체계적인 영향(Gellerstam 88)”과 TL에 대한 부족한 지식에서 비롯된다.

3. 2 번역투의 기능

번역투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으며, 이를 결코 이분법적인 잣대로

만 적용해서는 생각할 수없는 문제로서 하나의 스펙트럼선 상에서 보아야 한다. 먼저 번역투의 순기능을 살펴보자면, 번역자가 하나의 활용 가능한 번역 전략으로서 번역투를 의도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원천 텍스트의 이국적인 요소를 그대로 옮겨 이국적 정취나 풍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원저자의 문체나 어휘의 쓰임을 그대로 옮겨 소개하고자 할 때, 원천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특정 지역의 방언이나 등장인물의 특징이나 신분을 구별하고자 할 때, 등의 이유로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문학 텍스트의 번역에 있어서 시대를 구별하기 위해, 이국적인 정취를 고양시키기 위해 번역투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Reynolds 참조). 또한 기존의 문학 체계에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자 할 때 원천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번역투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목표 문화권에서 마치 번역 텍스트인 것처럼 간주하도록 하는 의사번역(pseudo translation, Shuttleworth & Cowie 134)의 방법도 번역투를 이용한 전략이다. 이러한 순기능적인 면에서는 목표 언어권에 존재하지 않는 신조어(新造語)나 구조, 기법의 도입을 통해 목표언어를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투에 이러한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투의 말과 글이 자생력을 갖고 수많은 자기 복제(mememes)²⁾를 하며 목표언어의 말과 글에 확고히 스며들기까지는, 공연히 글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목표언어 고유의 말과 글의 체계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의 규칙 및 언어 관습을 깬다. 또한 원천 언어권이 세계권의 중심 국가이고 지배 국가이며 목표 언어권이 주변 국가이고 피지배 국가라면, 그래서 목표언어권의 독자가 원천언어권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인식하면 번역투의 사용이 더욱 세련되고 식자(識者)층의 어투인 양 여긴다. 그 결과로 번역투의 사용이 목표언어 체계 내의 순수한 고유 어휘를 잠식하거나 문법체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빚기도 한다. 번역투의 사용은 단순히 언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혹자들은 번역이 문화 간의 패권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번역투의 인식과 수용에 신중하지 않은 일반인들과 젊은이들은 새로움과 호기심 및 특정집단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공유된 개념으로 쉽게 수용한다. 과학 기술의

2) 문화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 그리스어 'mimeme'에서 비롯되었다(Andrew Chesterman 참조).

발달로 쏟아지는 각종 기기를 매체로 번역투의 복제 속도는 더욱 배가될 것이며 그 결과로 목표언어권의 언어체계 내에 더욱 신속히 정착할 것이다.

번역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보다 빈번하게 생산해 번역투의 역기능을 촉진할 가능성은 전문 번역자보다 초보 번역자가 더 크다. 전문 번역자의 경우는 목표 언어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전문 번역자라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투의 생산에 취약한 초보 번역자의 번역과 번역투의 상관관계를 살펴 분석함으로써 번역투의 감소를 통한 번역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초보 번역자의 번역과 번역투

초보 번역자의 번역과 번역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재적 번역자이자 초보 번역자라 할 수 있는 영어 또는 영문학 전공의 3학년과 4학년생들에게 기존의 번역투 관련 문헌(권응호, 김정우, 이근달, 원영희 등 참조)에서 분류하고 있는 번역투의 유형별로 원천 텍스트(참고자료 참조)에서 사례를 발췌하여 번역 과제를 부여하고 이들의 번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번역투의 분석

중앙 대학교와 건국 대학교의 영어학과, 영문학과 전공의 3학년과 4학년생을 중심으로 총 84명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어학과 학생이 51.2%였고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 41.2%였다. 여학생이 65.5%로서 과반수이상 이었으며, 4학년 학생이 54.8%, 3학년 학생이 35.7%로서 3, 4학년 학생이 90.5%에 달한다. 이들의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인칭 소유격의 대명사를 번역할 때 한국어의 언어 관습에 비추어 이를 생략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생략하지 않고 번역해야 할 상황이라면 ‘나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학생의 86.7%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례에서 ‘나의 부모님’이라고 번역하였다. 복수의 일반인을 지칭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역시 생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99.1%의 학생들이 그대로 ‘우리’라고 번역하였다. 1인칭 재귀대명사가 강조의 용법이 아니라 목적어로 쓰일 때 역시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원천 텍스트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번역은 63.9%에 달했다. 1인칭 대명사에서 원천 텍스트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는 경향이 가장 높은 사례는 복수 일반인을 지칭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의 번역이었다. 다음으로는 소유격의 번역이었다.

3인칭 단수 대명사 ‘it’의 번역은 ‘그것’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거나 해당 명사를 반복 표기하는 것이 한국어의 어법 체계에 적합하다. 맥락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그것’이라고 번역한 학생은 전체의 21.7%였다. 3인칭 단수 대명사 ‘she’의 사례에서 ‘그녀’라고 번역한 학생은 92.4%나 달했다. 한국어에서는 ‘그녀’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구어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인칭 복수 대명사 ‘they’ 역시 한국어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해당 명사나 호칭, 지칭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그러나 73.5%의 학생이 ‘그들’로 번역하였다. 3인칭과 관련해서 번역투가 가장 빈번한 예는 ‘she’이며 사례에서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he’ 역시 ‘she’와 비슷한 빈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they’가 그 뒤를 잇고 있었으며, ‘it’에 대해서는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았다.

영어의 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맥락과 단어들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매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초보 번역자들의 번역을 살펴보기 위해 발췌된 영어 문장 내의 동사들은 수많은 동사 가운데 몇 개를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일 뿐 일반화와는 상관이 없으며, 중학교의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미 습득을 마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친숙한 단어들이고, 영어 텍스트에서 접할 기회가 많은 단어들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은 맥락과의 적절성 여부나 단어들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로 대응시키는 경향이 짙었다. 90%를 넘는 학생들이 틀에 박힌 정형화된 표현으로 번역한 사례들을 보면 ‘help(돕다)’가 98.8%를 차지하였고, ‘make(~하게 만들었다)’가 97.4%, ‘offer(제공하다)’가 92.8%, ‘provide(제공하다)’가 91.6%를 차지하였다. ‘need(필요하다)’는 87.5%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believe’가 80.7%, ‘find’가 79.5%, ‘decide’가 77.4%, ‘show’가 71.4%, ‘realize’가 65.7% ‘have’가 65.5%, ‘produce’가 63.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의 동사를 번역할 때는 한국어의 동사가 발달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맥락과 단어들 간의 호응 관계를 살펴 다양한 표현의 활용을 시도해야 한다. 구(phrase)의 번역 역시 동사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맥락과 단어들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이 있음에도 학생들은 맥락과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 가지 정형화된 표현에 집착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difference between A & B(A와 B와의 차이)’가 95.1%, ‘instead of(~대신에)’가 93.8%, ‘according to(~에 의하면, 따르면)’이 93.4%, ‘be located in(~에 위치하다)’이 81.6%, ‘enough to(~하기에 충분하다)’가 80.2%, ‘from A to B(A로부터 B까지)’가 77.5%를 차지하였다.

무생물 주어를 번역할 때는 한국어의 어법상 무생물 주어에 주격 조사 ‘~에(서)’를 적용하던가, 능동문의 목적격으로 바꾸어 목적격 조사 ‘~을/를’를 적용해야 적합하다. 하지만 무생물 주어에 주격 조사 ‘~은/~는/~이/가’를 적용한 사례가 92.9%에 달했다. 이는 그만큼 무생물 주어의 쓰임이 빈번한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무생물 주어의 사용이 흔치 않음을 초보 번역자들이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천 텍스트의 출현하는 다양한 문장부호는 한국어의 언어 체계에 존재하지 않거나 그 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맥락에 적절하도록 번역자가 개입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원천 텍스트의 문장부호를 생략하고 필요하다면 논리의 전개상 적절한 접속어를 덧붙이거나 부연설명, 자리이동을 해야 한다. 초보 번역자들의 번역 역시 이러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른 유형보다 번역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줄표를 이용한 삼입구나 삼입절의 번역투가 27.8%, 쌍점(:)이 25.3%, 쌍반점(;)이 22.5%를 차지하였다.

영어는 수의 표지가 매우 엄격한 규칙 하에서 적용된다면, 한국어는 영어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다. 수와 관련된 학생들의 번역에서 한국어의 수표지의 용법에 적절하지 않는데도 원천 텍스트의 수 표지를 그대로 옮기는 사례는 빈도가 그리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 사례마다 조금 달랐지만 대략 14~35%에 달했다.

영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번역투가 발생하는 시제는 ‘be going to’ 유형의 미래시제와 현재완료 시제이다. 한국어로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현재형을 비롯해 ‘~르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미래의 의미가 중복된 ‘~할

예정이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러한 번역을 한 번역자는 38%였다. 또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의 경우, 한국어로는 단순 과거로 표현을 하고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죽', '내내' 등의 부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에 대해 번역투의 번역을 한 번역자는 미래 시제의 경우 38%에 달했고, 현재완료 시제의 경우는 48.8%에 달했다.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달라서 생기는 번역투의 유형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신분과 고유명사가 나란히 병기되었을 때를 대상으로 했다. 영어에서는 신분을 먼저 표기하고 고유명사인 이름을 나중에 표기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름인 고유명사를 먼저 표기하고 신분이나 지위는 나중에 표기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번역투의 발생은 해당인사가 한국 문화권에 잘 알려져 있을 때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가 달랐다. 잘 알려져 있을 때는 원천 텍스트의 구조대로 신분을 먼저 표기하고 고유명사를 나중에 표기한 번역투가 11.1%로 매우 낮았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64%로 높은 편이었다.

영어에서 쓰임이 매우 분화된 단어는 전치사이다. 적용되는 맥락이 매우 다양한 만큼 번역시에 활용할 어휘도 매우 다양하다. 사전을 찾아보아도 이는 알 수 있다. 그만큼 번역어도 다양하고 다양한 만큼 맥락에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도 힘들다. 번역자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초보 번역자들의 번역은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로 번역한 사례가 상당했다. 그 가운데 'about(~관해(서), 대해(서))'이 75.6%, 'through(~을 통하여)'가 75%, 'in(~에서)'이 53.6%를 차지하였다.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하나의 단일 어휘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는 논리의 전개에 적절한 연결어미를 이용해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초보 번역자들의 번역투 사례를 살펴보면, 'if(만일~라면)'가 75.3%, 'because(왜냐하면~때문이다)'가 64.2%, 'although(비록~에도 불구하고)'가 53.2%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영어의 병렬 표현인 'A, B, and C(A, B, 그리고 C)'의 사례도 18.8%로 나타났다.

영어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 능동문과 피동문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무생물을 주어로 사용하는데 익숙하며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국어는 대부분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피동문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지

고,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의미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불가피하거나 완곡한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피동문을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동문의 문장은 능동문으로 번역해야 자연스럽다. 이에 대한 번역자들의 번역을 살펴보면, 영어의 피동문을 그대로 피동문으로 번역한 사례가 63.8%에 달했으며, 행위자 표시 'by'에 대해서도 '~에 의하여'로 번역한 사례가 60%에 달했다. 행위자 표시 'by'의 경우 한국어로는 여격 '~에게', '~한테'나 도구격 '~에', '~로'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화법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번역상의 문제가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 she said, "……"를 대상으로 했다. 'she said' 부분을 문장의 맨 앞이나 뒤로 옮겨 연결해줘야 한국어 언어 관습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원천 텍스트의 구조 그대로 옮긴 학생은 63.3%에 달했다. 또한 인용부호의 정확한 적용을 하지 않은 학생은 45.6%에 이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 초보 번역자들의 번역에 상당히 정형화된 표현이 우선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물론 번역자의 개인적인 능력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영어의 학습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거란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익힌 영어 단어·숙어 관련 참고도서와 사전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 해보았다. 중학교 단어 관련 참고서 5종(국제어학연구소, 김민, 안용덕, 장봉진, YBM Si-sa)과 숙어 관련 참고서 2종(김민, 안용덕), 사전 3종(동아 프라임, 두산동아 프라임, YBM 시사영어)을 비교한 결과, 초보 번역자의 번역에 나타나는 번역투 표현이 참고서 상에 표기된 표현과 거의 100% 동일했다. 참고서 상에는 단어의 의미나 구(phrase)의 의미가 하나나 두 개 정도 나열되어 있었으며,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나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참고서 상에 표현된 의미는 또한 사전 상에 수록된 첫 번째나 두 번째 의미와 동일했다. 초보 번역자들이 사전만 성실하게 찾아도 번역투가 그만큼 감소할 수 있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기에 초보 번역자들은 당연하게 사전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4. 2 초보 번역자의 번역투 유발 요인

초보 번역자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의 대표적인 의미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번역에 접근한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영어 어휘의 습득 과정에서 필수로 여기는 단어·속어 관련 참고도서에 비롯된다. 대부분의 참고도서에는 맥락이나 단어들 간의 호응관계에 따라 단어들의 의미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오로지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 사전 상에 가장 우선적으로 등재되는 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단어 대 단어로 대응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여파가 번역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는 사전을 참고하지 않는다. 의미를 아예 모르거나 애매모호할 때는 사전을 참고하지만,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번역투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게 분화된 의미 가운데 맥락을 고려한 적절한 의미가 아니라 암기를 통해 획득한 사전상의 대표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미 확고하게 알고 있다는 여기는 단어들은 영어에서 사용빈도가 많은 단어들이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한국어 번역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한국어는 맥락에 따라, 주변에 쓰이는 단어에 따라 어휘의 활용이 매우 세분되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행했던 번역이 학생 자신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였으므로 번역을 할 때 제 3자의 독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해를 위한 도구와 제 3자를 전제로 하는 상품과는 분명 다르다. 전문번역은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가 가능해야 하며, 번역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원천 텍스트의 고유한 특징을 옮겨 독자에게 전달해서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초보 번역자의 번역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텍스트의 맥락과 단어들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단어 대 단어를 대응시키는 접근의 번역을 한다 해도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 맥락과 주변에 함께 쓰이는 단어들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때 맥락을 이미지화해서 떠올리면 그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휘 선정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 교육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별해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 말이란 문어체일 때와 구어체일 때 그 표현이 다르다. 문어일 경우는 문어체에 적절하도록 어휘 선정을 해야 하고 구어일 경우는 구어체에 적절하도록 어휘 선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초보 번역자들은 이들에 대해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영어와 한국어는 문법 규칙과 구조가 다르고, 관용적인 쓰임이 다르며, 범주화가 다르고, 어휘가 주는 분위기가 다르며,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번역 과정에서 떠올리지 않는다. 다르다는 점을 의식하기 보다는 영어 텍스트에 쓰인 그대로 한국어 텍스트에 옮기려는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영어에 대한 지식보다 오히려 더 부족하였다. 번역자는 원천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목표 언어와 문화에 통달하는 것이 최우선의 자격요건이다. 원천 언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의 습득 중 더 어려운 일은 원천 언어에 관한 지식의 통달이다. 언어는 생리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계속 반복하며 변화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 하므로 모국어가 아닌 원천 언어에 통달한다는 일이 쉽지 않음은 자명하다. 목표 언어가 모국어라면 목표 언어의 습득은 원천 언어의 습득보다 쉽다. 그러나 쉽다고 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초보 번역자의 경우 영어보다 오히려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훨씬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목표 언어이자 모국어인 한국어의 지식 습득에 주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 목표 텍스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5. 결론

번역자라면 누구나 번역을 잘 하고 싶은 욕구를 갖기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번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혼자 궁리를 하기도 하고 참고 문헌을 뒤적이기도 하며 전문적인 번역교육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초보 번역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랜 숙련 과정을 거쳐야만 훌륭한 번역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지만 번역투만 피할 수 있어도 제 3자인 독자가 보기에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 수 있다.

번역을 잘 하기 위한 첫 걸음은 번역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번역투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둘러싼 문화와 언어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품질이 낮은 번역 텍스트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언어적인 층위에서 비롯되는 번역투이다.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 체계와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매우 다양한 유형의 번역투를 생산할 소지가 있다. 전문 번역자도 이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초보 번역자에 비하면 번역투를 생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반면에 초보 번역자가 상대적으로 번역투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번역투가 발생할 만한 상황에서는 유형마다 번역투가 발생하였으며 빈도의 차이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번역에 있어서 ST의 중심의 축어역 접근을 하고, 목표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며, 번역시 두 언어 체계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오역과는 달리 번역투는 교육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번역자 양성을 위한 번역 교육의 현장에서는 일차적으로 품질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번역투에서 번역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안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번역투의 유형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발췌하여 이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번역 텍스트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며, 초보 번역자가 전문 번역자로 나아가는 길 또한 단축될 수 있고, 목표언어 체계에 적합한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목표 언어의 보존과 보호 역시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응호 엮음. 1993. 『영어번역 이렇게 한다』. 서울: 학일출판사.
 김종규 · 김정연 옮김. 2002. 『번역교육과 교육에서의 번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Jean Delisle & Hannelore Lee Jahnke(editorship). 1998. *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et traduction dans l'enseignement.*

Presses de l'Université d'Ottawa).

- 김정우. 1990. 「번역문에 나타난 국어의 모습」, 『국어생활』 21, 38-55. 국어연구회.
- 김정우. 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143-167. 배달말학회.
- 문 용. 2000. 「번역과 번역 문화」, 『국어생활』 21, 14-26. 국어연구소.
- 박여성. 1997. 「비난 또는 헌사: 서평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4. 텍스트언어학회.
- 박여성. 2002. 「번역교육을 위한 번역 파라디그마의 효용성-텍스트언어학의 입장에서 고찰한 “번역투”(翻譯套)의 규명을 위한 연구: 쿼터 그라스 “양철북”과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 숙명여자대학교.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초림 외 3인. 2001.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강사 설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2, 2, 37-56. 한국번역학회.
- 송 민. 1979. 「언어의 접촉과 간섭 유형에 대하여-현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성신여대』 10. 논문집.
- 송 민. 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25-34. 국어연구소.
- 원영희. 1999. 「실무 번역」, 『국어문화학교: 번역반』 14, 25-34. 국어연구소.
- 원영희. 2003. 『일급 번역교실』. 서울: 한언.
- 이근달. 1998. 『영문 번역의 노하우』. 서울: YBM 시사영어사.
- 이석규 외 5인.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이흥식. 2002. 「서평 텍스트에 대한 계량적 고찰」, 고영근. 『문법과 텍스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진한. 1990. 「번역과 우리말」, 『국어생활』 21, 23-37. 국어연구소.

Bassnett, Susan & André Lefevere, (eds.). 1990.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and New York: Pinter Publishers.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Duff, Alan. 1981. *The Third Language: Recurrent Problems of Translation in to English*. Oxford: Pergamon Press.
- Encyclopedia Britannica. 198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Unabridged and Seven Language Dictionary. 1. G & C Merriam Co.
- Fowler, H. W. 1965. *A Dictionary of Modern English Us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ellerstam, Martin. 1986. "Translationese in Swedish Novels Translated from English", in Wollin, Lars and Hans Lindquist (eds.). *Translation Studies in Scandinavia: Proceedings from The Scandinavian Symposium on Translation Theory (SSOTT) ? Lund 14-15 June, 1985* [Lund Studies in English 75], Lund: CWK Gleerup, 88-95.
- Longman Dictionaries. 1995.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Longman Group Ltd.
- Puurtinen, Tiina. 2003. "Genre-specific Features of Translationes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Finnish Children's Literature" in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18, 4, 389-406.
- Qirk, R.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Inc.
- Random House. 2000.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New York.
- Reynolds, Matthew. 2003. "Browning and Translationese" in *Essays in Criticism*, 53, 2, Oxford University Press. 97-128.
- Shuttleworth, Mark and Cowie, Moira. (eds.). 1999.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teiner, George. 1998.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irkkonen-Condit, Sonja. 2002. "Translationese-a myth or an empirical fact? :

A study into the linguistic identifiability of translated language” in *Target-Amsterdam*, 14, 2, 207-220.

[참고 자료] 분석 텍스트

- 권영도. 2001. 『꼬꼬 중학 영단어』. 국제어학연구소.
김민. 2002. 『중학 영단어』. 눈과 마음.
김민. 2002. 『중학 영숙어』. 눈과 마음.
안용덕. 2002. 『우선순위 기초 영단어』. 비전.
안용덕. 2002. 『우선순위 영숙어』. 비전.
장봉진. 2004. 『중학생 알짜 영단어』. 월드
YBM Si-sa. 2003. 『절대입문 영단어1100』.
네이버 영어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다음 영어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야후 영어사전: YBM 시사영어



[Abstract]

The Necessity of Translation Training: From Acquiring Foreign Languages to Producing Professional Translators

Lee, Keun Heui
(Konkuk University)

Each time translationese is seen in a target text, it is thought that the text is translated by a preliminary translator or a undergraduate English major. This study aims at why such translationese happens and what appropriate alternatives will be.

The reason for translationese is that the two language system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for ideal translation. For this study, some examples of translationese of potential translators or undergraduate English majors are extracted from source texts, and the translationese frequency is surveyed and analysed.

Through this study, it is shown that translationese is frequently seen in many parts and it is closely related with English reference books in their middle and high schools. It is also shown that the translated expressions of the reference books are similar to those of potential translators or undergraduate English majors. Moreover, the expressions of the English-related reference books have general meanings registered in English dictionar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ranslationese results from translation training for acquiring foreign languages, which makes people regard translation as just a tool for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Thus now is the time that some college curriculums should suggest translation training for producing professional

translators. In fact, translation training for acquiring foreign languages is different from translation training for producing professional translators. One of the differences is translationese. When the frequent types and reasons of translationese are analysed and some translation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 translation ability of potential translators or college students will be improved.

▶Key Words: translationese, translation assessment, translation training, professional translator, pseudo translation.

이근희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강사

번역학

Keunheui@unitel.co.kr

논문투고일 : 2005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 2005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 2005년 6월 10일

